

목숨값, 32만원 ... 사람은 왜 ‘부품’ 이 되었는가

10월 15일,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월 23일, 사니 제빵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손을 끼어 손가락을 절단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월 2일, 농심 부산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팔을 끼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상황 속에 왜 그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어떻게 피해를 보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김수빈 기자 202080006@m365.knsu.ac.kr

블루칼라 노동자



블루칼라 노동자의 작업복이다. 찢든 때는 기분이 고 찢어지고 해졌다. 출처: 한국일보

앞서 언급한 노동자들은 한 가지 카테고리 묶인다. 바로 ‘블루칼라 노동자(blue-collar worker)’라는 점이다. 블루칼라 노동자(이하 블루칼라)는 미국에서 육체노동자를 이르는 말로, 생산직에 종사하는 육체노동자가 주로 푸른색 작업복을 입는 데서 생긴 말이다. 주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직장인이나 사무직 노동자와 같은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대비되는 말이다.

이들은 주로 단순한 일을 일과 내내 반복하고, 교대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일의 피로도가 높은 직업이다. 일부 사람들은 육체적 노동에 대한 선입견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하기도 한다. 외국인 노동자라면 인종 차별 발언까지 더해진다. 정신적 피로감도 동반하는 직업이다.

일의 강도와 피로 정도는 주관적이라고 해도, 일의 위험성은 여지없이 블루칼라가 높다. 위험한 기계를 다루야 하는 일을 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바깥에서 노동을 주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직업군보다 안전에 유의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예측가능한 사고, 예방하지 않았던 공장

10월 15일에 발생한 사건 8일 전, 해당 공장은 이미 노동자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다친 이가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이기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심지어 MBC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해당 노동자는 “아침에 라인(생산라인)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무슨 종이에 사인을 막 해요. 거기에 안전 교육 이수했다는 그사 인이요. 안전 교육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라고 답했다. 안전 교육은 물론, 사후 대처까지 미숙하게 처리한 것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재해자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37명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사고유형은 ‘끼임 사고’였다. 그런데도 끼임 사고 방지 장치인 ‘인터록’을 설치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고 당일 교반기 9대 중 2대에만 인터록이 부착되어 있었다. 노동자들은 항상 자신의 안전과 일을 두고 치킨게임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노동자들이 안전장치 설치를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는 여전히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



피해 노동자는 해당 기계 앞에서 덮개와 안전장치 없이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출처: KBS1

았다. 사망사고 난 현장만 전으로 가린 후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바로 옆에서 빵을 만들었다. 사망한 노동자를 기계에서 꺼내 수습한 동료 노동자들에게도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 트라우마를 호소했으나 회사는 대부분의 노동자를 다시 일에 투입했다. 비인간적인 대처는 대중의 황당함과 분노를 샀다. 누군가가 죽지 않았다면, 혹은 죽었더라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죽을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피로 물든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의 건설 노동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출처: EPA 연합뉴스

스포츠와 관련한 노동자 사망 사건도 있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 현장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것이다. 11월 20일에 개최하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도 이를 피해 가진 못했다. 2021년 영국 더 가디언(The Guardian, 이하 더 가디언)에 따르면, 카타르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중 약 6,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심지어 사망 사유 대부분은 안전사고가 아닌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휴식과 물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열사병과 심정지 같은 이유로 사망한 것이다. 이전에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은 40도가

넘는 기온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으나 노동자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주 노동자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숙소 시설도 부실하고 월급은 한화로 약 32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더 가디언과 인터뷰에선 1년이 다 되도록 임금체불을 했다는 노동자의 증언이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시위에 나섰으나 돌아온 것은 분국으로 추방일 뿐이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노동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안전과 허술한 줄타기

조금씩 변화하는 사회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은 참담한 이유로 유명세를 탔다. 2016년 5월 28일 일어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때문이다. 당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 모 씨는 출발하던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는 작업이지만 그는 홀로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더해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검수하고 약 30분 안에 을지로4가역 스크린도어 정비까지 맡았어야 했다. 촉박한 시간에 밀려 그가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 환경이었다. 이후 밝혀진 수리 노동자의 처우는 처참했다. 월급 144만 원을 받고, 컵라면조차 먹지 못할 정도로 바쁜 중노동에 시달린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지적받은 것을 토대로 정비 인원을 2배 이상 늘렸다. 그리고 승강장 전문 전담 관리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직원을 보강했다. 스크린도어 정비 직원을 직고용하고 서울교통공사 무기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일자리로 변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준 것이다.

이에 더해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되었다. 원청업체(입찰에 응하여 도급을 따낸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외주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게 했다. 원청업체가 외주직원들의 안전관리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다.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자들의 처벌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이 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자생각 | 우리도 그들이 될 수 있다

블루칼라 노동자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사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37.5%다. 10명 중 약 4명은 비정규직이다. 우리 역시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가 부실한 안전과 불합리한 대우로 죽어왔지만, 여전히 비슷한 사고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가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제 1원인은 물론 비체계적인 안전 대책과 대우다. 하지만, 간접적인 이유로는 그들이 목숨을 걸어야 만들어 낸 상품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보는 대중도 이제는 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기장이 피로 지어진 줄 모른 채 경기를 보며 함성을 지르거나, 문이 고장 나 수리 문제로 열차가 지연되면 민원을 넣고, 한정판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제품을 구매한다. 물론 불매 혹은 소비는 자유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친구 역시 비정규직으로, 블루칼라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인들이 해당 직업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당장의 소비는 줄이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 문제에 동참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하는 것에 동참해봄이 어떨까.

